시급한 부패구조의 청산

교수기고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경유착, 권력의 정통성 부재가 구조악 초래

독재극복하는 사회·경제 민주화 실현이 관건

90년 하반기 이후 우리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권력엘리트들의 부정부패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91년 벽두부터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과 국회의원들의 뇌물외유및 水西택지 특혜분양사건이 일어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구조가 새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水西사건은 정·경·관·민의 복합유착에 의한 총체적 부정부패의 일대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특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한 몰염치한 사건이며, 정치와 행정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은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악'의 일부가 폭로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관행들이 허다하리라는 심증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법의 문제보다 법이전의 문제 즉 국가기관의 기강문제, 지도층의 집단적 도덕성의 문제, 분배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문제, 정부와 국민, 정치와 국민사이의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전 기 호
〈정경대교수·경제학〉

그리고 이렇게 관행이된 부정부패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의욕을 좌절시키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즉 권력엘리트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는 국민대중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자리 수의 임금인상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89년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2.9%에 해당하는 18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수치조차도 지하경제중 탈세만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과소추정되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만약 사채, 부동산 투기, 각종 탈세, 뇌물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경제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50%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우리의 사회·경제규모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특징은 '무엇을 해주는데는 얼마다'하는 시세가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런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핵심은 권력층 비리와 정치부패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적 이권에 연관되어 있는 집단사이의 깊은 유착에서 나오는 부정부패가 전반적인 부패구조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구조의 역사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국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즉 적산(敵産)의 불하과정에서 보여준 식민지관료와 일부 기업인들의 유착은 우리사회 부패구조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왜곡된 부의 축적과정은 독재권력의 창출에 기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료의존형 기업을 확대재생산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해방이후 절대권력의 정통성부재는 부정부패라는 구조악을 필연적으로 확대시켜야 했다. 즉 정통성이 부족한 권력자는 자신의 지지자를 끌어 모으고 반대세력의 입을 막기위해 일종의 통치비용을 지출해야 했는데, 통치비용은 결국 부정부패 속의 상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정치비리는 필연적인 것이다.

또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라 방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이 요구되는 정치구조는 기업인→관료→정치인→기업인 순으로 순환되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최대한 가동되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정부패가 경제·사회·문화등의 민간부문들에까지 확산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확산된 부정부패는 도덕적 가치혼란과 지나친 물질추구욕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나 정도받아 챙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하는 부패 불감증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켰다. 또 정당하건 부당하건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잘 따라야 승진이 잘 되고 출세하게 되어 있는 관료체계의 풍토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문화적 정의(情誼)와 의리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도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학연, 혈연을 중심으로 정실형(情實型)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즉 제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람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수서비리 사건은 권력의 대표적 부패사례

구조화된 부패와 일상화된 비리를 일시에 극복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정통성이 취약할수록 정권유지비가 커질수 밖에 없다. 권력부패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치자금조달과 관련된 부패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패구조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의 역량이 부패구조 척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차선책으로 부정부패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90년 상반기 뚜렷한 이유없이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부정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정치자금의 흐름이나 불로소득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또한 관료부패에 대한 공공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정비가 시급하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등의 정착은 그만큼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요컨대 부패구조의 청산없이는 근로의욕을 증진시킬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통일논문 현상공모 오는 8월31일까지

통일원은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한다.

응모논문은 원고지 80매 내외로 8월31일까지 다음 논제중 택1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환기의 통일의시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방향

▲북한사회 개방화를 위한 실천 전략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과제

(문의:738~7522)

학술정보

김남주·안재구 특강 5시, 도서관서

본교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심의위원회 산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5시 특강을 개최한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초청강사는 김남주 시인과 안재구(전 숙대교수)이다.

강의주제는 문학강의—삶의문학, 과학철학강의—우리세대의과학과 철학이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16일:문학이란 무엇인가?

▲4월30일:삶의 문학에 대하여

▲5월7일:자연이란 무엇인가?

▲5월14일:사람과 자연

▲5월28일:민족과 국토

(문의:구내전화 0699)

미니시리즈—교수학회를 점검한다

연구실 넓힌 학문공동체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로 학문 발전 이뤄

학문 세분화로 신생학회 증가 추세

학문발전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학회의 활동상황을 점검, 그 이해를 높이고자 본보는 다음호부터 본교교수 가입학회의 구체적예를 시리즈물로 게재한다. 〈편집자註〉

'아카데미즘의 집합체'라는 '학회'는 대학의 학문발전에 주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학회'에 대해 교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학생들의 '과 학회'가 모든 학과에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를 '공부'하는 과단위의 소모임이라면 교수들의 학회는 각 전공분야를 한층 깊게 연구하기 위한 전문성을 띤 집단이다. 한 학회에 전국 각대학의 관련 교수와 연구원들이 대부분 참가한 모임인 만큼 학문연구의 틀이 넓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우선 학술적인 정보교환이 교수들의 학회참가 이유가 되겠죠 더불어 같은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조동규(문리대·지리학)교수의 말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등록된 학회수는 5백54개, 가입인원 총24만8백38명으로 그 규모와 구성원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학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이사등으로 구성되고, 회원은 정회원(전임교원), 준회원(대학원생),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결정은 주로 이사회에서 하고 연락사무 등은 회장단 또는 '학회'사무실에서 담당한다.

또한 학술행사는 1년에 2~3차례 갖고, 연구발표를 한 후 논문을 수록한 연구회지 또는 논문집을 발간한다.

학회의 운영비는 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임원회비, 관련단체의 지원비등이며, 이로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바도 없지않다.

이에 대해 신정현(정경대·정치학)교수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학회는 각계각층에서의 연구프로젝트 지원 및 관련단체의 지원이 많아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회는 비교적 충실하다"고 말한다.

한편 학회간의 편차도 커 매년 2~3회의 연구발표를 개최하는 학회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정기행사만 치뤄내는 학회도 있다. 이는 학문발전에 따라 학회도 세분화되어 신생학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연구활동이 없는 학회는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분화되어가는 학회들의 예를들면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등 각 전공분야가 거의 영역이 미분, 확장되고 있다.

"외국의 학회활동을 보더라도 아주 활발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학회에 많이 참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정범(문리대·국문학)교수는 같은 부문간 국제적인 학술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학회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본교에서도 대부분 교수가 비슷한 성격을 띤 2~3개씩의 학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교 교수들이 가입한 학회를 중심으로 각 학회의 성격, 연구방향, 활동상황등을 검토하고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다음호부터 게재될 '미니시리즈—학회'에서 각학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점검한다.

〈오은희 記者〉

歲時錄

지배논리의 최첨병 '북방정책'

오는19일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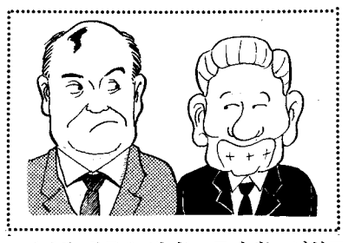
이에대해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휴양지에서 두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 단시간동안 회담하는 방식은 요즈음 많이 있는 일이라면서 소련과의 외교관계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음을 떠들어 댄다.

그리고 소련의 입장이 절친한 우방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수 없이 제주도를 회담장소로 원했다는 명분도 병행하고 있다.

약간이라도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3시간동안의 회담을 위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제주도로 간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란 것을 인식할것이다.

즉,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웃사람이 왔을때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식의 굴욕적인 회담이 아닐까 한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권의 맹주격인 소련에 대해 애써 친밀하게 보이기 위해 40억달라의 자본을 빌려주는 등 소련과의 수교를 위해 여러가지 제스처를 써왔다. 그결과로써 그나마 제주도에서 만나더라도 '방한'이라는 모양을 갖추려는 정부의 행동들이 가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근저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활발히 진행하려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저의가 숨어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아로 만든 후 약간씩의 원조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선전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그러면, 정부의 대 국민선전에 북방정책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 않으면 정권은 단하루라도 집권할 수 없는 정부의 궁여지책(?)이 아닐까.

이상에서와 같이 북방정책은 지배체제 강화전략의 최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세력들은 미국과의 관계속에서도 고양이앞의 쥐신세처럼 정권의 유지를 위해 시녀의 노릇을 해오고 있지 않는가. 이제 소련과의 수교아래 소련원수가 방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알고있다.

소련에 대해 40억불을 지원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보다는 오히려 개탄해 마지않을 것이다.

정부는 체제안보논리의 첨병인 북방정책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국의 진정한 통일이나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되어져야 될것이다.

전문직 여성 33인 글모음집
서른, 하나둘셋
이 시대 전문직 여성 33인이 전문직을 꿈꾸는 여대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① 카피라이터 편
그해 4월은 유난히 여드름이 심했다. 졸업식까지 치르고 났는데도 이렇다 할 취직자리 하나 잡지 못하고 바둥거렸더니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얼굴에서 가슴까지 번져갔다.… 원서 접수라도 시켜보았더라면 여드름이 그 정도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신입사원 원서 교부처에서부터 "여자는 안 받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뒤돌아 나와야 했었으니 식구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내 꼴은 말도 아니었다. 매일 죽을상을 해가지고 빌빌거리는 내 모습이 보기 싫으셨는지 하루는 엄마가 예비신부 학교라는 「예지원」얘기를 꺼내셨다.… 그들속에 끼어 강의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대학 마친 우리 젊은 여자들의 할 일이 정녕 결혼뿐이란 말인가? 학교때부터 생각했던 내 꿈은 어디 가서 찾나, 남편을 통한 자아의 실현? 웃기는 이야기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대학 4년 곰곰이 훑어봐도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해놓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남자 없을 땐 토플학원이라도 다녔었지.… 하여튼 그후 한달 동안 예지원 대신 학교로, 각 선배들에게로 취직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뛰어다녔다. 결국 난 직장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지희〈카피라이터〉글 〈사계절의 변주곡〉중에서
'84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오리콤 입사
'85년 한국일보 공공광고 부문 우수상, 중앙일보 신인부 대상
'88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주관 방송광고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91년 현재 오리콤 크리에이티브 1실 대리
도서출판 전원
100-392 중구 장충동 2가 114-2 동아빌딩 501호
(☎ 271-2608~9, 268-8655, FAX: 275-3361)

'91 여름방학 해외어학연수
공부도, 여행도 짭짤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도 미국, 영국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랭귀지 아카데미의 버클리학교와
영국 런던의 휫츠로 칼리지 오브 잉글리쉬
에 입학하여 학교근처의 친절한 민박가정
에 머물며 삼주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열흘쯤 명승지 문화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코스 (버클리학교)
기간/1991. 7. 7~8. 6(30박31일)
모집인원/25명 안팎
관광/샌프란시스코, 몬트리, 카멜, 로스엔젤레스, 뉴욕, 워싱톤, 버펄로, 시카고, 하와이 등.
●영국코스(런던교외 FCE 학교)
기간/1991. 7. 6-8. 7(32박33일)
모집인원/25명 안팎
관광/런던, 옥스포드, 리드캐슬, 캔터베리, 토비, 암스텔담, 부다페스트, 로마, 나폴리, 폼페이, 제네바, 파리 등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전통있는 삼희관광(주)에서 해 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광화문 영어학교/언어교육학원으로 해 주십시오.
영어회화라면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
제117기 개강 5월 1일/등록접수중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5, 8주
●반 편 성 : LEVEL TEST후 8~13명씩 7단계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 뒤 • 전화 (02)737-4641(대)

개 강
5월1일
영어·일어
러시아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옆·종로2가·734-2442
시사영어학원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병주특기부여
3. 매월 단독 입영
4.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타자행정병
관인 인성학원
☎ 730-6946~7
종로1가 무과수제과 2층
관인 유니타자학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프랑스語
5·6月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 91. 5. 1(水)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MÉTHODE TÉLÉVISUELLE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 mauger Ⅰ, Ⅱ, sans fron. Ⅰ, Ⅱ, Ⅲ
• archipel Ⅰ, Ⅱ, Ⅲ, bonne route Ⅰ
•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 traduction, thème. S F P.
• 각과정 방학특강반, 문법총정리반 신설
• conversation libre, 시사메디아반
sé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éoul ☎ 555-1125, 1126(강남)
PUSAN:622-3601 KWANGJU:364-0189
TAEGU:255-4630 DAEJON:256-5181
alliance française
財團法人 韓佛文化財團
알리앙스 프랑세즈